

□ 연구자료

자립의 객관적 교훈

H. G. 언더우드

옥성득 편역(보스톤대 교회사 박사과정)

【역주 : 한국 초기 선교 15년의 역사를 “자립”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이 글(자료 A)은 본래 중국의 선교잡지인 *The Chinese Recorder* 지에 실렸다. 언더우드의 자립정책을 알 수 있는 가장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이 글을 줄여서 1900년 뉴욕에서 열린 에큐메니칼선교대회¹⁾ 앞으로 보냈다(자료 B). 번역문에서 [] 부분은 자료 B에서 생략된 부분이다. 자료 비평의 관점에서 [] 부분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것이 이 번역의 한 목적이기도 하다. 1899년말에 쓰여진 이 두 자료는 지금까지 별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실태와 네비어스 정책의 한국 정착 과정, 소래교회와 새문안교회의 첫 예배당 건축 과정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은

1) 1900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인 19세기를 정리하는 선교대회였다. 참가 회원 명부에 보이는 한국 선교사는 북장로교의 H. G. Underwood, W. M. Baird 부부, O. R. Avison 부부, C. C. Vinton 부부, 남장로교의 W. B. Harrison 부부, F. S. Miller, 북감리교의 C. D. Morris, Mrs. S. B.(L. A. 의 오기로 보임) Scranton, 남감리교의 은퇴한 C. F. Reid 등이다. 서구의 근대 문화와 기독교 선교의 확장에 대한 승리주의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A. T. Pierson이 대회 말미에서 주장했듯이, 19세기 선교 역사의 최대 성과의 하나인 “자립·자치·자전하는 본토 교회”는 이 대회의 중요한 토론 주제였고, 한국교회의 자립에 대해서는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글이 일찍졌다.

더 줄인 형태로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June 1900, 443~449에 실리기도 했다. 참고로 1901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브라운(A. J. Brown)은 언더우드의 이 글과 자금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²⁾ 그리고 언더우드는 1908년 6월에 이 글(자료 A)을 수정하여 *Korea Mission Field*지에 “Principles of Self-Support in Korea”라는 글을 기고했다. 출전 : 자료 A - H. G. Underwood, “An Object Lesson in Self-Support,” *The Chinese Recorder*, August 1900, 384~392 & September 1900, 446~450 ; 자료 B - *Report of 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 New York 1900*, vol. II(New York : American Tract Society, 1900), 301~305】

선교하는 모든 교회는 선교지에서 “자립·자전·자치하는 교회”를 원한다. [선교방법에 대해서 한국 현장과 필자의 생각이, 다른 선교사나 선교단체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들도 우리만큼 자립하는 교회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루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업 방법이 그 목적을 가장 신속하게 달성하리라 믿는 반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그러리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립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자립을 가장 만족스럽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려고 한다. 곧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자금을 넉넉히 지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립의 원리를 밀고 나가므로써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보고서는 [자립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립의 원리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간 한 선교 현장에서 얻은 객관적인 교훈을 제시한다.

2) A. J. Brown, *Report of a Visitation of the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 New York :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CUSA, 1902.

[교회의 모든 분야 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방법은 널리 시행되어 왔다. 신속하게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희망에서 거의 모든 선교지에서 이 방법³⁾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희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립정책, 곧 각 분야마다 자립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이를 계속 견지하는 계획이 [제대로 시행된 곳은 별로 없다. 사업을 시작할 때, 미래에는 자립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계획은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20년, 40년, 60년, 아니 한 세기가 넘는 선교지들에서도 자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방법 역시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보고서가 설명하려는 이 후자의 방법은]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네비어스 박사는 한번도 이 계획의 창시자라고 자처한 바는 없지만, 이 계획을 선교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킨 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선교구역인 중국 산둥성에서 이 계획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했음이 분명한데, 같은 선교회 소속의 동료 선교사들이 다른 원칙에 따라 일했기 때문이다.⁴⁾ [그 계획의 성공적인 시도는, 그 방법 자체 성격상, 한 선교지부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통일된 단일체가 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일하고 있고, 그 체계의 객관적 교훈을 찾고자 하는 한국에서도 충분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감리교 형제들은 우리만큼이나 진지하게 자립하는 교회를 원하고 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다. 따라서 두 체계

3) Nevius는 이 방법을 “old system”이라고 비판했다. 네비어스가 비판하는 구 체계는 유급 본토인 사역자(paid native agency)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의 신 체계는 사업 처음부터 독립과 자급(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from the beginning)을 적용하는 원리이다.

4) 특히 Calvin W. Mateer가 네비어스의 가장 신랄한 비판자였다.(cf. Mateer’s *Review of “Methods of Mission Work”*)

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만일 새 선교지에서 한 마을에 옛 노선대로 일하는 선교회가 있어서, 예배당 건축비의 4/5나 전부를 도와주고, 전도사와 권서 및 전도부인까지 봉급을 주고, 본토인 학교를 지원한다면, 3마일 내지 10마일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다른 체계를 시행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당도 스스로 짓고, 사역자들의 봉급도 지불하고, 전도사 지원도 담당케 하고, 책도 사게 하고, 학교도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분리된 선교회 선교사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한 선교회 안에서 다른 노선을 택하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두 명이 혹은 여섯 명 정도가 그런 계획을 제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업을 시작하려고 한국에 오는 길에, “비의존적인 일본인”이 외국 선교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데 놀랐다. 이 문제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선교 역사가 더 오래 되고 보수적인 중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사업 초기에, 곧 우리 계획들을 충분히 성숙시키기 전인 1890년 여름에, 다행히도 네비어스 박사가 미국에 가는 길에 우리를 방문했다. 이미 그의 책 《선교사업의 방법들》(*Methods of Mission Work*)⁵⁾을 통해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많은 [도움과] 암시를 받은 터였다. 그러나 그의 방문을 통해 우리는 그의 체계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 들을 수 있었다. 타 선교지의 선교방법과 그 결과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조사한 후에, 우리 선교회는 [비록 우리 사업이 좀더 느리게 시작되고, 여러 해 동안 눈에 보이는 열매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다른 방법보다] 이 계획을 [조심스럽게] 따르면 더 확실하게 교회를 세울

5) 1885년 *The Chinese Recorder*에 연재한 글을 모아서 1886년 상해의 장로교 출판사에서 발간했는데, 1958년에 나온 제4판,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가 지금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글번역은 김남식, 《네비어스 선교방법》, 성광문화사, 1981이 있다.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행히 이후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우리의 사업을 보고 나서 거의 동일한 견해를 갖게 되었으며, 한두 명 의견을 달리했던 자들도 다수 결로 채택된 방법을 따르기로 동의했다. 더욱이 뒤이어 도착한 다른 장로교회도 기꺼이 동일 계획을 채택했으며, 침례교 선교교회도 동일 노선에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두 개의 미국 감리교회와 (그 선교정책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없는) 영국 선교회⁶⁾를 제외한 이곳의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의 안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 이므로 그 체계가 한국에서 정당한 시험을 거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체계 하의 결과를 고려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본국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자금을 너무나 자유롭게 쓰는 방법과 함께 병존하면서 자립 체계를 실천해 나가는 어려움이다.

우리 선교회가 지금 따르고 있는 체계는 정확히 원래의 네비어스 체계는 아니다. 사업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으로, 네비어스 방법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네비어스의 《선교사업의 방법들》[과 비교해 보면 그 책]이 제시하는 계획들보다 훨씬 더 철저히 자립적이다.

[먼저 다음 사실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 한국인들은 [부유하지 않으며] 극도로 가난하다. 부자 상인들의 큰 조합 조직도 없다. 적은 돈도 한국에서는 행운으로 여겨진다. 한 사람이 백 달러의 자본금만 가져도 부자나 한량으로 쳐 줄 정도다. 우리 교인들의 절대 대다수가 속해 있는 가난한 계층 사람들은 대부분 사방 8자 방이 한 개나 둘뿐인 낮은 초가 흙 오두막집에 산다. 그 방도 한쪽에 창문 대응으로 쓰이는 종이가 발린 구멍이 있고, 그 옆에 보잘 것 없는 작은 격자문이 있을 뿐이다. 내가 알기로는 중국 산동성은 중국에서 가난한 지역의

6) 자료 B에서는 복음전파회(Society for Propagation of the Gospel)로 수정, 공식적인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하나인데, 이곳 출신의 중국인 상인·목수·건축업자 등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일하러 와서 하는 말이 한국인들은 산동인보다 더 가난하다고 했다. [우리가 한중 국경의 압록강을 따라 내려갔을 때, 양안의 대조는 극명했다. 중국 쪽은 석재로 지은 기와집과 튼튼하게 만든 비싼 배들, 쇠못으로 박은 바퀴가 달린 잘 만든 마차, 모피 의복 등 모든 면에서 잘 사는 모습이 역력했다.⁷⁾ 그러나 반대편 한국 쪽은 초가 오두막집에 작은 종이 창문, 쓰러질 듯한 배, 무명 옷 등 어디로 보나 가난한 티뿐이었다.] 우리 사업의 성공은 따라서 결코 한국의 부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음은 우리가 일해온 일반적인 원칙들이다. 선교사는 지도자로서 백성들 중에서 사역자들을 모아야 한다. 각 선교사에게는 한 명의 개인 유급 조사가 허락된다. 그러나 유급 조사는 그 자격이 증명된 경우에만 채용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선교사에게는 조사가 아예 없다. [한 선교사의 일이 너무 늘어나서 삼 사십 개의 교회, 때로는 더 많은 교회를 돌보아야 할 경우, 한 명의 조사로서 일을 감독할 수 없을 때, 선교회의 연례회의의 결정을 거쳐 추가로 한 명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전도사나 목사도 외국 자금으로 봉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외국 자금이라 함은 선교부의 돈, 본국 친구들의 지원금, 선교사의 지갑에서 나온 돈 등이다] 선교사는 자신의 조사(때로는 두 명)로 하여금 계속 선교지를 방문하게 하고 그를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전도사역과 전도사들의 봉급 지불 및 새 지역의 복음 전파는 본토인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 예배당이나 예배처소(chapel), 초등학교는 본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이 부분에서 많은 진보가 있었는데, 비록 시작할 때는 경비의 절반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본토인들에게 교회 부설 학교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우리

7) 자료 A에서 *The Chinese Recorder* 편집자는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정정하고 있다.

는 처음부터 복음 전파의 짐을 본토인의 어깨에 지웠다. 가능하면 모든 곳에서 이 일을 기꺼이 그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로 하여금 복음은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도록 맡겨졌으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려고 애썼다.

[이 계획으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모든 원리들을 마음속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위대한 결과를 보려면 오래 오래 기다려야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업 진행은 우리가 채택한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때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사업이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이른바 옛 방법을 따르는 다른 교회들이 시작단계에서는 우리를 숫자 면에서 앞서리라고 예상했다. 우리는 천천히 가려고 예상했다.⁸⁾ 최소한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 복음 전도의 짐을 본토인들에게 맡겼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진지한 기독교인 사역자들의 교회가 생겼는데, 이들은 복음을 전국 방방곡곡에 재빨리 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188개 불완전한 장로교회 조직 가운데 (작년 9월 통계) 186개가 완전히 자립하고 있다.⁹⁾ 어른 수세인이 2,873명인데, 지난 한 해 동안 865

8)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언더우드는 “감리교적” 목사로서 “전도의 유희”를 견디지 못하고, 국왕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더 높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믿고 불법적인 내륙 전도도 감행하는 등 공격적인 전도정책을 취해 알렌 등의 비판을 받았다.(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New York : American Tract Society, 1904, 14) 이 무렵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행동, 재빠른 결과, 대중 개종(action, quick result, mass conversion)을 원했다.”(F. H.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Madison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1944, 91)

9) 미조직 교회 188개와 자급 교회 186개는 각각 288개, 286개의 인쇄 잘못으로 보인다. 1899년 5월 통계에 의하면 미조직 교회는 261개, 조직 교회는 2개이다.[R.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ume I, 1884~1934(Seoul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명이 늘었다. [현금한 내용을 보면, 회중 경비 - 2,525.90엔 ; 교육 - 411.89엔 ; 예배당 건축과 수리 - 3,099.53엔 ; 국내 및 해외전도 - 237.11엔 : 1년 총계 6,274.43엔. 이것은 부분적인 수치로서, 곡식·계란, 여러 농산물의 연보와 전도와 교회 건축에 헌신한 수많은 자원 봉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과 개항장은 다른 곳보다 임금이 비싸지만, 기술자 일당이 50센트(미화 25센트)이고 노동자는 30센트(15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당 1불 50센트를 받는 곳이라면 위의 금액은 그 열 배인 62,744.30엔에 해당한다.]

이 교회들 가운데 두 곳의 교회당 건축 역사로 실례를 들고자 한다.

1. [소래 혹은] 장연교회

10여 년 전¹⁰⁾ 이 교회 회원들이 10여 명이었을 때, 그들은 서울에 있는 나에게 대표자를 보내 이웃 마을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인들의 일부는 복음을 처음 중국에서 들었기 때문에 선교사업에 대한 개념도 그곳에서 보고 배웠다.¹¹⁾ 나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기뻐하면서 언제 건

Department of Education, 1934), 546] 1900년초의 통계는 미조직 교회가 270개 가운데 자금 교회가 268개이고, 남자 조사 16명, 여자 조사(전도부인) 6명, 수세자 3,935명, 교인 14,500명이 있었지만(A. J. Brown, *Report of a Visitation of the Korea Mission*, 32), 한국인 목사는 전혀 없었고, 장로도 4명(소래에 1명, 평양에 3명)에 불과해서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는 2개밖에 없었다.”(ibid., 13) 곧 “미조직”이라는 말은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일종의 “group”을 말하는 것으로 장로교회 헌법상의 “church”는 아니었다. “한국에서 교회 조직은 최하위 고려 사항이었다.”(ibid.)

10) 1890년 봄이다.

11) 서상륜·서경조 형제 등 초기 소래 교인들은 만주의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 선교회의 로스와 매킨타이어에게서 교회 개념과 선교 방법을 배웠다. 로스와

축을 시작하는지 물었다. 처음에 나는 그들이 내게 의존한다는 대답을 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부가 교회를 지어줄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안 나는 그들 스스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말해 줌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깨우쳐 주었다. 그들의 반응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이었으나, [나는 산에 가면 나무가 있고, 집에는 도끼와 도구들이 있으며, 팔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육이 있으니 예배당을 세우려고, 시작하는 날짜를 알려주면, 나도 내려가서 나무를 자르고 예배당을 짓는 일에 손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몇 년 뒤 맥켄지 목사가 캐나다로부터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시

매킨타이어는 한문에 능했고, 특히 본토인 조사와 권서에 의한 전도와 자급에 큰 비중을 두었다. 로스는 네비어스의 선교정책에서 많이 배웠으며 그를 중국 선교사 가운데 “가장 폭이 넓고 뛰어나며 정확한 지성의 소유자”라고 존경하였으며, 자립정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친한 사이였다.(John Ross, “Missionary Methods,” *The Chinese Recorder*, May, 1898, 247) 네비어스가 산둥에서 실제적인 자급 교회를 이루지 못했음에 비해, 만주에서 로스는 상당한 정도로 자급 교회를 이루었다. 1898년 당시 선교 25년만에 만주노회는 선교사 17, 교회 132, 본토인 목사 1, 장로 17, 집사 165, 수세자 5802, 학교 58개로 성장했는데, 성장의 주 요인은 “본토인 전도사와 권서들의 전도”때문이었다.(John Ross, “A Manchuria Presbytery,” *The Chinese Recorder*, December, 1898, 621) 로스는 교회 사업(전도)은 본토인 교인들이 자립하고, 전도기관(예, 병원)은 외국 선교회가 지원하는 방법을 실시했다. 로스는 네비어스보다 훈련된 본토인을 유급 전도사로 채용·지원하는 데 좀더 긍정적이었는데, 네비어스는 로스의 이 정책에 동의하면서, 산둥에서는 자격을 갖춘 믿을 만한 본토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John Ross, “Missionary Methods,” *The Chinese Recorder*, May, 1898, 248) 따라서, 한국 서북지방과 만주의 두 장로교회의 자립정책 사이에는 “많은 점에서 유사한데, 만주에서는 본토인 조사에 의해 수많은 자급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전도가 주로 이웃에 영향을 준 개종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은 존 로스 목사, 네비어스 박사, 언더우드 박사 등이 만든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Concerning Mission Work in Pyenyang, Korea,” *The Chinese Recorder*, April 1900, 214) 한편 한국의 경우 사경회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자원해서 참석했다.”(ibid.)

골에 집을 구하길 원했으므로 내가 제안해서] 소래 마을에 정착했다. 그가 보여준 진지한 기독교적 생활은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주를 위한 봉사에 냉담했던 교인들도 그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곧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다. 한 사람이 산에 있는 나무를 내어 놓자, 다른 사람들은 가서 자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소달구지로 운반했다. 한 가난한 과부는 교회 건물이 들어설 땅을 기부했다.¹²⁾ 다른 사람들은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냈고, 몇 명은 돈을 냈다. [맥켄지 형제는 교회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의 부음 소식을 듣고 온 소래 교인은 내게 소래로 가서 1895년 7월 첫 주일에 헌당식을 올려줄 것과 그의 장례식을 부탁했다.]

교회는 [7월 7일 헌당되었다. 본토인들이 땀 흘린 결과요 주님에 대한 너무나 열렬한 사람의 증거였다.] 약 60가구의 농촌 마을 한 가운데 세워진 견고하게 지어진 예배당이었다. [기와집으로 크기는 35자에 20자였다. 무보수로 일하던 서경조 형제의 목회 하에] 한 달이 채 못되어 건물이 비좁아져서, 확장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1년 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두 배로 늘어났고, 2개의 학교 교실도 추가되었다.

오늘 이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튼튼한 교회의 하나다. [그들은 장연 순회구역의 중심이 되었고, 12개 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는 교회 자체 경비는 물론, 장로와 집사들의 지도하에 [교회들과] 마을들을 순회하는 전도사 한 사람의 봉급을 지원하고 [그의 사택도 지어 주었다.] 교회 부설 학교도 지원하는데, [관대한 교회 회원들이 수시로 땅을 기부해서 지금은 모든 학교 경비를 거의 자급하고 있다.] 이

12) 소래 지방은 무교가 강했는데(Elizabeth A. McCully, *A Corn of Wheat, The Life of Rev. W. J. McKenzie of Korea*, Toronto : The Westminster Co., 1904, 144), 이 땅은 원래 마을 제사를 올리던 사당이 있던 자리였다.(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 124)

들은 나아가 다른 교회와 예배처소 건축을 돕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때때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마을에 전도대를 보내고 있다.] 선교 헌금도 적립하고 있는데, 인도에 기금이 들었을 때와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만행 사건 때에는 자발적으로 연보를 모아 보냈다. [인도 기금을 위한 연보만 해도 80엔이 넘었다.] 이들의 수입과 하루 10센트도 안 되는 임금을 고려해 볼 때, 이 자발적인 연보를 위해서 그들은 적지 않은 희생과 고생을 감내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서경조 형제는 이 지역의 장로인데 내게 [통계 수치를 알려 주면서], 만일 본토인 개종자들이 옛날 우상을 섬기던 때의 열성만큼만 관대하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 교회 건축을 위한 돈은 물론, 학교 운영비와 [책 값]을 지불하고도 남은 돈으로 지도자로서 필요한 선교사들의 봉급에까지 보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형제는 중국 산둥지방을 두루 여행했는데, 그곳 사정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본토인 기독교 신자들이 개종하기 이전에 이방 종교에 쓴 돈을 자세히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며, 본토인 교회를 자립의 노선에 따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것이다.]

2. [정동 혹은] 새문안교회

[맥켄지가 그의 교회를 계획하기 시작할 거의 같은 때¹³⁾에] 서울 기독교인들은 선교부 울타리 안에 있던 작은 건물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너무 협소하여 확장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때 시골에서는 본토인들이 스스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임금이 너무 높고 물가는 너무 비싸서 모든 것이 귀한데다가, 모든 교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일반적 규칙에서 예외

13) 1894년 11월이다.(Elizabeth A. McCully, op. cit., 148)

로 해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교인들을 모아 놓고 예배당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새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는 새 건물을 지을 경우 비용이 1,000엔 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능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물었다. 선교사나 본토인 양쪽에게 적은 일이 아닌 이 안들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한 후에 그들은 [500냥 곧] 20여 엔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우 기뻐다. 서울에 있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안되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들의 성의와 [그런 성의를 창출한 노력이] 자랑스러웠다. 선교사들도 새 건물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 조달에 들어갔다. 부지가 구해졌고,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어느 날, 내 집에서 열린 작은 기도회에서, 집사인 이춘호(Yi Chun-ho)가 [외국인의 도움 없이] 본토인들의 손으로 새 교회당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선교사들은 물론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나는 [즉시 그를 보면서] 말했다. “당신들이 모금한 20엔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믿습니다. 새 예배당을 지으려면 거금 1,000엔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강하게 반박을 받을 차례였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 한두 회원이 교인들에게 이 취지로 제안하자, 몇 사람이 나와서 그들이 책임지자고 강력하게 연설했다.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일을 하고,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재료를 모으고 해서, 모두 하나로 단결하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결심하자고 했다.] 교인들은 이 제안을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단연코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그 일부를 따로 떼어서 모아 놓을 주님의 광주리(Lord's basket)를 부엌에 두기로 결의했다.¹⁴⁾ 그것을 팔아 교회에 내기 위해

서였다. [전혀 낼 게 없는] 소년들은 등짐으로 건축에 쓸 돌을 날랐다. 일 한번 한 적이 없는 남자들도 할 수 있는 일에 자원했다. [일할 만한 자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곧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건물이 세워져 나가면 돈은 나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몇 명의 기독교인 목수들은, 가족 생계 때문에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교회를 짓는 동안 이틀에 하루씩은 무보수로 교회를 위해 기쁘게 일하겠다고 나섰다. 선교회가 제공한 것은 부지·기와·건물 한 쪽을 넘어지지 않게 받치는 기둥 몇 개뿐이었고, 나머지는 전혀 돕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왔으며, 그해 성탄절에 새문안교회를 헌당하는 특권을 누렸다. 순수 본토인의 손으로 750엔의 비용으로 세운 교회였다. [35자에 23자 크기로 큰 건물은 아니지만 순수 본토인의 돈으로 세워졌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예배당은 차고 넘쳤다. 교회 부지가 허락하는 한 곧 더 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장연교회와 새문안교회의 예와, 거의 동시에 교회당을 세운 평안도의 한두 교회가 보여준 예를 전국 어느 곳이나 장로교 사업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따라 갔다. 선교사가 어떤 선교

-
- 14) 이것이 한국교회 토착화 특징의 하나로 꼽히는 誠米제도의 시초가 아닌가 여겨진다. 무교와 불교에서 이미 실시하던 종교적 헌납제도인 곡식 모금을, 1895년 경 서울 정동교회의 여자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독교에 수용하고 “주님의 광주리”에 모았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성미제도는 나중에 정착되어 교역자 사례나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 모아졌다. 참고로 東學에서 개칭한 천도교는 1906년 손병희의 지도하에 조직을 근대화하면서 교인의 5대 의무인 五款을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가 성미였다. 그들은 아침 저녁 밥쌀에서 한 사람당 한 숟가락씩 떼서 모아 두었다가 기도하고 교회에 냈는데, 매월 내는 月誠과 일년에 두 번 내는 年誠의 두 가지가 교단의 재정사업이 되었다. 천도교의 이 “성미”라는 용어와 제도가 기독교에 영향을 주어 1910년대에 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참고 :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 103~104), 이미 1890년대 중반에 한국 교회에 도입되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부를 방문했을 때 본토인들이 교회당이나 예배처소를 준비해 놓고 헌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며, 정말이지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것들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한국인들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한 견본에 불과하다. 위의 예들은 단지 필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택되었을 따름이며,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에서 채택한 일부 계획들이다.

첫째, 우리는 본국에서와 같은 완전히 조직된 교회를 [유아기의 본토인 교회에서] 목표로 하지 않는다. [여러 해 동안 한국 장로교회 선교회들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감독할 목적으로 매년 선출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일반 의회(general session)가 존재해 왔는데 (현재는 두 개뿐이다), 이 의회는 선교사 개인이나 위원회에 사업을 조직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장로교 공의회에 소속한 선교회들의 189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188개 교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완전히 조직된 장로교회는 하나도 없다. [현재 3,000명이 넘는 수세자가 있는 시점에서, 완전 조직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는 두 명의 선출 장로와 교회 일을 처리하는 서리집사회(board of stewards)가 있다.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예배를 책임지는 지방 지도자가 있으며,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서리집사회나, 좀더 오래된 교회의 경우에는 집사회(board of deacons)가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¹⁵⁾이 제반 교회 일을 감독한다.] 조직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고, 지도자는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맡는데, 장로가 있을 경우는 그가 맡는다.

15) 초기 한국 장로교회 조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리' 제도의 적용이다. 서리 목사로서의 "조사", 서리 장로로서의 "영수", 그리고 서리 집사 등이다. 한편 서리 세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인" 제도도 채용되었다. 언더우드는 이 글에서 "stewards"와 "deacons"를 구분하고 있는데, "stewards"는 남녀 서리 집사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집사를, "deacons"는 영수와 정식 집사를 지칭하는 용어인 듯하다.

둘째, 교회 건축은 본토인들이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양식에 어울리도록 설계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이 자립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왜냐하면 본토인들에게 능력에 지나치는 외국 양식의 건축을 부과하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지부가 위치한 대도시에서는 아주 잘 지은 견고한 기와집 예배당을 짓지만, 작은 시골에서는 작은 초가집 예배처소를 짓는다.¹⁶⁾ [많은 경우에 이런 초가집도 적지 않은 부담과 희생이 뒤따른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불신자에 대한 전도 책임을 신자들에게 맡기려고 노력한다. 모든 기독교인이 활동적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특권임을 느끼도록 만든다. 사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며, 그들이 직접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애쓰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회중 가운데 가장 지적인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송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경비를 본토인들이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가 부담한다.] 일부 교회는 전도사들을 영구적으로 채용하여 전임 사역자로 일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전도사들이 채용되면, 우리는 본토인들로 하여금 봉급 지불 방법을 스스로 정하게 허락하는데, 종종 본토인 방식대로 여러 섬의 곡식을 주고 연료비와 사택을 제공한다.]

선교회가 조사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 선교지부에 관련된 선교사들이 조사 두 명의 월급 절반을 지원하고, 본토 교회나 개인이 나머지

16) 따라서 이 당시 영문 보고서와 통계에 나오는 “churches”는 대도시에 있는 기와집의 큰 예배당을 말하고, “chapels”는 시골의 초가집 형태의 작은 예배당을 가리킨다.

절반을 담당한다.

넷째, 회중이 보증하는 모든 곳에서 교회 부설 학교들은 교회가 지원하는 것이 선교정책이다. 그 학교들은 형편에 따라 담당 선교사나 서리 집사, 영수, 혹은 장로의 감독 하에 둔다. 앞에서 언급한 장연교회에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남녀 공학이다. 본토인들이 전적으로 지원한다. 교과과정은 천자문, 구약, 신약, 기초 산수, 지리, 만국사, 기초 격물학 등이다. 새문안교회에는 교사가 2명인 남학교와 교사가 1명인 여학교가 있다. 교육과정은 장연교회와 같다. 교회가 두 학교 경비의 절반을 대고 선교회가 나머지 절반을 담당한다. 모든 교회 부설 학교를 자급으로 하는 것이 선교회의 목표이다. 교인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이지만 외부인의 후원도 받으므로, 귀중한 전도기관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 부설 학교들이 자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배우고 졸업하는 청소년들은 강한 향학열을 갖고 있어서, 일을 해서라도 상급 학교에 다니길 원하며, 그 부모들도 그런 학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선교회는 선교지부가 있는 대도시에도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세울 목표를 갖고 있다.¹⁷⁾ 선교회는 외국인 교사, 본토인 교사들의 봉급 대부분, 학교 건물의 시작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개교부터 경상비, 전등비, 연료비, 관리인의 보수, 학생들의 기숙사비 등은 모두 본토인이 맡게 될 것이다. [본토인들은 벌써 그런 기관 설립을 위해 상당한 기금을 준비해 놓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심하지 않고 이 원리를 고수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수준의 학교¹⁸⁾를 갖게 될 것이고,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의 봉급만 지출하면 될 것이다.]

17) 자료 B는 이 부분을 다섯 번째 원리로 제시하여, 총 8개 원리로 정리하고 있다.

18) 그 결실의 하나가 1906년 평양의 합성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이다.

다섯째, 본토인 사역자 훈련은 가장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초대교회에 정규 목사직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삼 년 전부터 새문안교회는 가장 유능한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을 초빙하여 교회 일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작은 잔다리교회는 지난 2년 동안 모든 시간을 헌신해서 말씀을 전하여 그 교회를 개척한 청년에게, 그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규 목사직이 세워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까운 미래에] 별도의 신학교를 세울 계획은 없다.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경향 각지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를 가진다. 이 연구반은 보통 약 한 달간 계속되는데, 성경을 교재로 하여 지도자들의 공부를 지도하고, 그들 사역에 적합한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한 명 이상의 선교사가 보통 이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교회사, 조직신학 개요, 성경 주해를 가르친다.] 실천이 늘 강조되어, 사경회가 열리는 도시에서 여러 번에 걸쳐 특별 전도활동을 한다.

[또한 우리가 전도여행을 할 때 이들을 동반한다. 때로는 그들 자신의 경비로, 때로는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지원하고, 때로는 선교사가 여행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설교와 조직에 대해서 실제 훈련을 받는다. 동행하는 외국 선교사는 소요학과처럼 모든 학문에 걸쳐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을 답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 경우 한번은 기선이 떠나기 전에 일을 하기 위해 야간 여행을 해야만 했다. 한 곳에서 저녁 9시 30분에 예배를 마치고 새벽 3시 30분에 있을 다음 설교처로 걸어간 여섯 시간 동안 나는 8명의 지도자들과 가장 즐거운 천문학 공부를 했

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문하는 선교사와 그 동행인들을 반갑게 대접하고, 그 보답으로 선교사는 도시에서 열리는 사경회 때, 한 달 동안 그들의 지도자를 대접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늘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식대를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촌 사경회와 심지어 도시 사경회도 본토인들이 자비로 참여한다. 이 사경회반에 누구나 초대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목표는 오직 선발된 지도자에 있으며, 순회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특별히 초대한 자들만 대접을 받는다. 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특권은 잘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비로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나 교회가 도와준다.] 비슷한 사경회가 최근에 여자들을 위해서도 시작되었는데, 경비의 대부분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이 지도자들을 여름과 겨울 사경회를 이용해서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순회 전도여행에 동반하거나 교회들을 조직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실제 훈련을 통해 보충하게 한다. [곧 신앙에 뿌리가 잘 내려 있고, 성경을 알고, 믿는 바 신앙의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반을 육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발전하면 더 잘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고, 영구적인 본토인 목사가 요구되며, 좀더 정규적인 신학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 때가 되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여섯째, 본토인을 위한 서적과 출판은 선교사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되었다. [그들은 책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에 거의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종이 값은 반드시 넘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했다. 최근 예수교서회는 책값을 거의

생산비에 가깝도록 가격을 인상했는데,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일곱째, 의료사업에서도 동일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본토인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소에서 약을 받거나 모든 약값과 식대 등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돈이 없다고 치료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지는 않는다. [극빈자에게는 무료로 약을 준다. 그러나 부자는 왕진비와 약 값 전부를 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 관한 몇 가지 사실과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계획의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최종 판단이 내려졌거나 더 발견될 것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의 이 체계에 복을 주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한국 선교 첫 15년이 지난 지금, 이 체계를 따라온 장로교회는 188개 교회 중에 186개가 자립하고 있고, 수세자 3,000여 명, 연보 약 7,000엔, 그리고 자급으로 거의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할 수 있다.]¹⁹⁾*

19) 자료 B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된 결론으로 맺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도 바울의 모범과 원리를 따르려고 애썼다. 그 원리들은 낡은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철저한 통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확신한다.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 사도가 만일 지금도 살아 있다면, 자신의 방법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지켰던 그 원리들, 곧 영원한 기독교 교회의 기초가 된 그 원리들을 고수하리라고 확신한다.”